

제2절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대한 정보

- ❖ 인천공항은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을 완공하여, 평창 올림픽 전 내년 1월 18일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공항에 복수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라 여객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되면 공항이용 시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한다.

1.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관한 유의사항

Q1.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A. 연간 1,800만명이 수용가능한 제2터미널이 개장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혼잡이 크게 해소되어 입·출국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감소하여 공항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새로 개항하는 제2터미널에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이 이용할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 등 나머지 항공사는 제1터미널을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Q2.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제1터미널이 바뀌는 점이 있나요?

- A. 대한항공이 제2터미널로 이동함에 따라, 현 여객터미널 서측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있던 동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탑승동에 있던 에어 캐나다와 싱가포르항공 등 외국항공사 40개는 제1터미널로, 제주항공과 진에어, 이스타, 티웨이, 에어아시아 등 국내외 13개 저비용항공사(LCC)와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9개 외국적항공사가 탑승동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Q3.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은 어떻게 이동하나요?

- A. 도로를 기준으로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간 거리는 약 15~18.5km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터미널을 이동하는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나, 이를 이용하더라도 약 24~32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항 출발 전, 이용하

는 항공사와 탑승수속을 위한 터미널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비행기를 놓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4. 대한항공 공동운항편을 이용하려면 어느 터미널을 이용해야 하나요?

A. 외국적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는데 실제로는 대한항공이 운항사이거나,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는데 제1터미널에 위치한 외국적항공사가 실제 운항사인 경우 어느 터미널로 가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동운항편의 경우 실제 운항사 탑승수속 체크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사가 위치한 터미널로 가면 됩니다. 발권받은 e-ticket을 보면 비행기 출·도착 시간과 함께 운항 항공사와 이용터미널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ticket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매한 항공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5. 대한항공-진에어 공동운항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항공은 외국적항공사 이외에도 자사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운항하는 일부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제1터미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진에어가 운항하는 대한항공 공동운항편을 구매한 승객은 제1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 공동운항 노선은 인천-클락, 코타키나발루, 사이판, 다낭, 기타큐슈, 부산-세부, 다낭, 기타큐슈 등 21개 노선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한 탑승객은 공항 출발 전, 공동운항편 여부를 확인하여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항공이 운항사일 경우 제2터미널로, 진에어와 그 외 항공사일 경우 제1터미널로 가셔야 합니다.

Q6. 대중교통을 이용해 제2터미널에 갈 수 있나요?

A. 제2터미널은 제1터미널과 별도의 교통센터(철도·버스 이용 시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1터미널보다 터미널과 교통센터 간 거리가 감소하여 이동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 시에는 터미널 밖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제2터미널의 경우 교통센터 지하 1층 실내에 버스터미널을 조성했기 때문에 내부 대합실에서 기다릴 수 있어 악천후, 무더위 등에 상관없이 터미널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항철도 이용 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제1터미널까지 갈 때보다 600원을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A. 하나의 공항에 2개 이상의 터미널이 생기는 것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 항공사가 사용하는 터미널이 달라 승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을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기 출발 하루 전과 3시간 전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승객에게 이용 터미널 위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하였고요. 모든 E-ticket에도 이용 터미널을 표시하게 됩니다. 또 제2터미널 운영 초기에는 제1터미널에도 제2터미널 이용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를 임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항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에 터미널 안내도가 설치될 겁니다.

Q8. 해외에도 복수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공항이 있나요?

A. 사실 해외에는 다수의 터미널이 있는 공항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JFK공항)의 경우 8개의 터미널이 있어, 대한항공은 터미널 1을, 아시아나항공은 터미널 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도 5개의 터미널을,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3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터미널 간 사이는 도보로 이동하기에 멀기 때문에 인천공항처럼 순환 셔틀버스나 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하게 된다면, 터미널을 이동해야 하는지 여부, 이동한다면 방법 및 소요 시간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터미널 이동이 필요한 공항에서 환승하게 될 경우, 환승 시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항공기를 놓치게 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 제2터미널 개요

- ❖ 연간 5,400만 명을 수용하는 제1터미널에 이어 제2터미널의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곧 개장할 예정입니다.
- ❖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의 포화상태를 예측하여, 2009년 3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음.

- ▶ 3단계 사업은 제2터미널뿐만 아니라 연결철도·도로, 계류장, 주차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임.
- ▶ 제2터미널은 인해 연간 1,800만 명이 수용 가능한 시설로,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연간 총 7,200만 명의 여객을 수용 가능하게 되었음.

〈부록 표 6〉 인천공항 3단계 공사 개요

구분	1, 2단계	3단계	합계
여객터미널	662천㎡(5,400만명) (T1 ↔ 탑승동A)	384천㎡(1,800만명) (T2 일부)	1,046천㎡ (7,200만명)
화물터미널	258천㎡(450만톤)	27천㎡(130만톤)	285천㎡ (580만톤)
교통센터	250천㎡	135천㎡	-
IAT	0.9km 복선서틀	1.5km 복선서틀	-
공항철도	서울역↔T1 61km	T1↔T2 연결철도 6.4km	67.4km
계류장	여객	여객 108개소	여객 56개소
	화물	화물 36개소	36개소 화물 21개소
총사업비 (사업기간)	1단계:5조6,323억원('92~'00) 2단계:2조9,688억원('02~'08)	4조9,303억원 ('09~'17)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3. 제2터미널의 특징

- ❖ 제2터미널의 경우, 제1터미널과 비교해 출국장 입국장, 보안검색장 대기구역이 약 3배 확대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출국심사 지역으로 연결되는 입구는 동·서 2곳으로 되어 있음.
 - ▶ 기존에 제1터미널은 출국심사 지역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총 4곳이었으나, 특정 지역에만 여객이 몰려 오히려 혼잡이 발생하였음.
- ❖ 셀프체크인 기기가 이용객 1만 명당 13.2대 설치돼 1만 명당 7.3대 설치된 제1터미널보다 많고, 스스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 셀프백드롭 기기도 이용객 1만 명당 6.8대로 1터미널의 약 8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 제1터미널에선 수하물 안에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으면 열어서 함께 점검하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3~5분 대기해야 하지만, 제2터미널의 경우 출국 절차를 다 마친 이후 면세점 구역에서 수하물을 열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아도 됨.
- ❖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이용객 1만 명당 14대가 설치될 예정임.
- ❖ 보안검색장에는 전신스캐너(원형검색기) 24대가 설치돼 보안검색 요원들이 일일이 몸수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